

세기말 파고를 넘고 우리 다함께 건축사 만세를 부르자

Overcoming the Waves of Fin-de-siecle

22대 회장퇴임에 부쳐

김영수 / (주)위칸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Soo

역사는 세기말을 끔게 놓아 두지 않는다. 더욱이 천년을 마감하는 새 밀레니엄의 시작의 격랑의 파고는 높고 시련의 강도는 극도에 이른 것 같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인데도 마감과 시작은 역시 인간의 한계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구를 심판이라도 하듯 자연재앙은 불가항력이고, 세상을 요절이라도 낼듯 환경위기는 시계 제로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무역전쟁과 경제불황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이러한 사태와 상황은 보다 심각하고 더욱 경고적이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집중호우라는 수마는 전국을 유린했고, 실업자와 노숙자, 그리고 기업부도와 개인파산이 이 추운 겨울을 더욱 끔끔 얼어붙게 만들 것은 불문가지기 때문이다. 옆친데 닳친다고 설계사무소는 개점휴업이고 오히려 폐업이 살길이라는 기형적인 현상까지 속출하는 형국이다. 이 이상 더는 아니라는 바닥론이 정부와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서서히 제기되는 이유도 지금의 실상이 얼마나 혹독한 하강점인지를 대변해 주는 말이다.

인재와 천재가 가져다 준 엄청난 역사의 비극은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지 결코 외면해야 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기에 인내와 타개 더불어 갈길과 살길을 두루 찾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찰나에 우리 모두는 봉착했다. 가기 위해서는 일어서야만 하고 살기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어느 지성인이나 어느 전문인보다 국민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세기말을 훌륭히 마감하고 21세기를 희망찬 새 천년의 전환점으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뚝서고 또 그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남을 위하지 않고서는 내가 존경받을 수 없으며, 나라를 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천직도 그 빛을 제대로 발산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논리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하고, 앞으로 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축전문인의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고,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의 책무를 아낌없이 충족시켜야만 한다. 개발시대의 가치관은 IMF속에서 정체되어 OECD의 선진제국과 발맞추는 새로운 시대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건축 또한 면허나 허가라는 낡은 틀속에서 탈피하여 창작과 생활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는 시대로 발빠르게 탈바꿈해야만 한다. 격변하고 있는 세기말의 시대사조에 동승하면 살아 남고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자랑스런 우리 건축사 모두의 대명사임에 틀림없다. 영욕의 세월에도 굳건히 우리의 천직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협회의 기치아래 모인 우리의 조직적 대응성과 때문이다. 65년 이래 33년 동안 건축사법과 함께 설계·

감리를 전문업으로 키워온 영광의 산실인 것이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집요하게 업역을 넘보던 재벌건설업체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추진회의에서의 승전보 등 실로 우리 협회의 비상대책은 자량이 아니라 괄목할 무용담 같은 것이다. 10여개 전문직 타단체들과 공동대처한 부가가치세 전격유보도 금년초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론되고 재연되는 정치현실과 정책오도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전문직 단체는 집단이기로 사시되고 시민단체들은 여론주도로 오인되는 유구무언의 희극상이 빚어낸 결과다. 문제시되고 있는 단체의 임의가입과 복수화 그리고 보수요율의 폐지 등도 관계당국과는 반드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남는다면 이는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대화와 설득 그리고 화합과 단결로 풀어야 한다.

협회의 주인은 당연히 회원들이고 무성의 서비스책임은 집행부의 소임이다. 책임의 양분이나 결과의 잘잘못 또한 어리석은 자의 논리일 뿐 합심협력과 일치단결만이 현명한 자의 대응논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행동요령 또한弱い 아닌 强, 이 强보다는 오히려 이 剛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는 조화를 찾아야 하고, 백성의 생활과 나라의 문화에 상반될 때는 전문인의 사명감으로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한가지는 건축사법의 인민재판식 개정방지와 이 법 속에서의 협회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합의한 건축사의 대표자 문제와 사무소등록을 포함한 행정업무의 협회위임이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과 하나되어 꼭 달성해야 할 또 다른 목표가 있다. 회비의존형 협회유지가 아니라 수익사업형 운영조직을 조기에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꾸준히 그 기반을 조성해 왔고 만반의 조직체계도 정비했다. 다음 아닌 건축연구소와 건축교육원, 건축정보센터의 설립으로 그야말로 삼위일체의 협회부설기관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대국민 대정부 신뢰의 요체인 연구소의 연구실적과 발간사업은 일거양득의 미래지향적 거모임에 틀림없다. 전문지식과 평생교육으로 대내외의 신임을 배가시킬 교육원의 향후 활약상은 아무리 그 설립취지를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더욱이 건축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야말로 당장의 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차세대 차세기의 핵심적 협회사업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16개 시도건축사회와 연결된 전산망은 풀가동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천리안 CUG 등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업무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료실 정비와 데이터베이스 등 지금도 쉬지않고 격무에 여념이 없다.

연구소와 교육원이 건축물의 허부구조라면 정보센터는 상부구조와도 같은 것이다.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건축사의 정성처럼 협회는 회원을 위하고 회원은 협회를 향한 일념으로 이 세 기구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때 협회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받아 더욱 살찌고, 회원은 그만큼 보다 많은 서비스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바로 협회와 회원이 함께 이겨낸 대장정의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99년은 건축사만이 아닌 건축계 전체가 심혈을 모아야 할 "건축문화의 해" 이다.

건축3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 수행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내일은 물론 건축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나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월 25일에는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으며, 산하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과 실무프로그램이 착착 진행중에 있다. 우리 협회도 ARCASIA Forum을 비롯한 많은 연례행사를 알차게 준비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들에게는 삶의 근본이 되고 생활의 터전이 되는 건축의 실용성을 폭넓게 홍보하고, 정부당국자에게는 문화의 기본이 되고 역사의 유산이 되는 건축의 진면목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절대적인 호기가 될 것이다. 이를 기본 바탕으로 지금까지 건축계의 숙원이던 통합추진기구의 적극적 활동이 가속화될 것도 확신해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엄연한 사실은 건축교육에서부터 실제 건축실무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제도 및 이해와 관행에 한없는 숙제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UIA, WTO, OECD와 연관되는 국제관행과 상호자격인증 문제는 우리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뜻깊은 건축문화의 해를 맞으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모든 건축인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관계정립을 통해 이상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붉은 녹듯 하나같이 모두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세기보다는 다음 세기를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숙명적 과업들이다. 아무쪼록 건강과 행운이 늘 찾아주고 모든 소원들이 하나같이 이루어져 건축사 만세를 다함께 외쳐볼 그날을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다.